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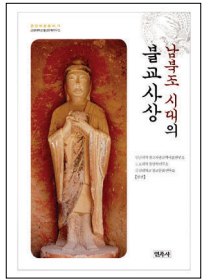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9 ~ 7/15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닫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7	명상선물	현빈	이출버스
3	깨달음	법륜	법륜	8	법구경(영문, 한문, 백일어어 수록)	전재성	한국문화연구원
4	붓다순례	자연	불광출판사	9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담앤북스
5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출판부	10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광,홍일	운주사



중국불교의 '생성'을 본다

남북조시대의 불교사상

연민대학 불교종교학이론연구소 · 도요대학동아학연구소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공편 민족사 펴냄 | 2인3천원



책은 중국 남북조 시대 불교의 사상적 전개 양상을 다룬 것으로, 중국 연민대학과 일본 도요 대학 그리고 한국의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2012년부터 '불교의 중국화'를 주제로 10년간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3국 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서역 여러 나라와 해로를 거쳐 동아시아로 수용되기까지 역사, 문화, 사상, 사회 등 여러 방면의 상호적 영향과 교류의 결과에 관하여 3국의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성과물은 지난해의 성과물인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교·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에 이은 것으로 2013년 6월 '남북조시대의 불교사상'이라는 주제로 중국 연민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의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된 한말로부터 위진을 지나 남북조 시대까지 중국사회는 격동과 혼란의 시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수용된 이국의 종교인 불교는 중국 사회의 여러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변용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책에는 그러한 남북조시대의 불교사상에 관한 소중한 여러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가 거의 없었던 <심지론의소(十地論義疏)>나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와 같은 이 시기의 주요 문헌을 분석하여 사상적 특징을 찾아내고, 남북조 시기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신앙과 사상을 살피고 있다.

이들간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금강대학교 총장 정병조 교수의 기조강연 '남북조 시대 불교 연구의 전망과 과제'를 포함하여, 김천학(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의 '법상(法相)·심지론의소(十地論義疏)·가분(加分)·삼종진(三種盡)에 대해

서' 등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책은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을 포함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모두 4장으로 나누어 다시 배열했다.

제1장 '남북조 시대 불교연구를 바라보는 눈'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남북조 시대 불교연구에 대한 최근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연구자들의 시야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학적 연구에 있어서 삼국 간의 연구협력 강화, 사회사상적 접근의 필요성, 인도와 서역 그리고 동남아를 아우르는 지리적 아시아의 확장, 문화사 연구와 사상사 연구의 융합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2장 '남북조 시대 불교사상의 저변(低邊)에는 남북조 시대 불교사상의 경향을 결정하는 저변의 흐름을 보여주는 논고들을 모았다. 쉬엔팡(宣方)의 '거울 속의 꽃-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2차 성과물

남북조 불교의 전개 양상에 관한

3국의 발표 논문 10편 엮어

<심지론의소>, <대반열반...>도 분석

남북조...불교, 사회전반에 영향

'중국적 불교' 성립되는 '연구기'

구나발마전 제검도'는 <고승전> <구나발마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장쉬예송(張雪松)의 '근주가 곧 현재'의 여래'의 숨은 뜻 해명'은 중국불교 나아가 동아시아불교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국가불교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구라모토 히사노리의 '용문 북조수당 조상명문에 보이는 정도신앙의 변용'은 용문석굴의 북조수당 시기의 정도신앙 관련 조상명문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북조로부터 당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생전신앙 및 정도왕생 신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제3장 '남북조 시대의 교학 연구, 중국적 불교해석의 원형'에는 남북조 시대 교학 연구의 전형을 보여주는 논고들을 모았다.

제4장 '불성과 종성(種性), 중국적 사유의 형성'에는 남북조 시대에 불성과 종성

개념을 중국불교인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하여 이해하였는가를 주제로 한 논고들을 모았다.

하유진의 <대반열반경집해>를 통해 본 열반사(涅槃師)의 불성의(佛性義)는 <대반열반경집해>를 통해서 남조 열반사들의 불성 및 열반사상에 대한 이해의 변화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김성철의 '종성무위론의 기원에 관한 한 고찰-〈보성론〉과 〈불성론〉의 'gotra'의 번역 용례를 중심으로-'는 현존 산스크리트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종성무위론이 동아시아 여래장 사상 전통에서 등장하는 배경을 탐색한 것이다. 이 논고를 통해서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사이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다.

오카모토 잇페이와 '정영사 혜원의 삼불성과 이종성'은 혜원의 삼불성설 창안에 대하여 그 필연성을 인도의 여래장 사상 형성단계로 소급하여 그 필연성을 <보성론>에서 탐색한 것이다.

오쿠노 미즈요시의 '길장(吉藏) 교학과 진제(眞諦) 삼장'은 남북조 시대에 인도 혹은 서역으로부터 변경삼장이 도래하였을 때, 새롭게 인식되는 사상조류를 중국의 불교인들이 어떻게 수용해 가는가를 보여 주는 논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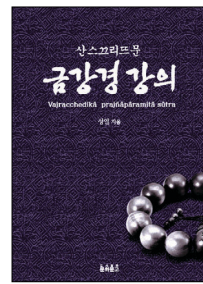
남북조 시대에 선행하는 위진 시대의 불교는 '수용(受容)'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남북조 시대에는 불교가 사회 각층에 흡수되면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북조 시대의 불교가 사회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역으로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심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은 인도불교와는 다른 중국불교를 낳은 분기점으로서의 위치를 지닌다. 곧 중국불교를 향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 남북조의 불교인 것이다. 인도불교의 중국 이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인 반면, 그 이식의 결과 중국인들의 인도불교에 대한 이해가 구조화되었던 시대였다. 그리고 그 구조화를 바탕으로 '중국적 불교'를 성립시키게 되는 대부분의 독자적인 사유가 형성되고 성숙되어 가던 시대의 불교사상, 그것이 '연구기'라고 일컬어지는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원문에서 시작한 <금강경> 읽기

산스크리트문 금강경 강의

성열 저음 | 문화교과 펴냄 | 2인5천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금강경> 읽기는 한역(漢譯)으로 된 경전 읽기가 주를 이루었다. 책은 한역이 아닌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시작하는 <금강경> 읽기다.

<금강경>이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중국선종의 다섯 번째 조사인 홍인 스님이 기주 황매현 동산에서 <금강경>을 가르치면서부터였다. 홍인 스님의 가르침을 동산정문(東山淨門) 또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이라 불렀고, 중국 유일의 여황제였던 측천무후까지도 도를 닦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산법문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산법문의 사람이라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홍인의 문하에 혜능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혜성 같이 나타나 여섯 번째 조사로 인정받고, 그의 문하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자 <금강경>은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의 원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금강경>은 누구나 읽고 깨달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그러나 대개의 일반인들은 불교경전이라는 한계로 인해 <금강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금강경>을 깊이 이해하여야 할 불자들이 내용에 대한 실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금강경>이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지만 정작 내용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전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번역의 편이, 이번 출간의 취지이다.

책은 저자 자신이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비롯됐다.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들이 나왔지만 단어의 해석이나 문법적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의문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성열 스님은 <금강경>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산스크리트 원문에 매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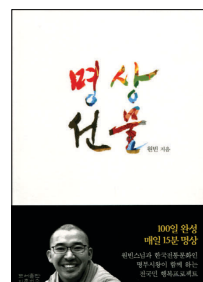
책은 산스크리트의 기초적인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그 동안 한문으로 읽어오던 <금강경>을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자는 취지의 책이므로 원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를 조금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책은 산스크리트 문법용어의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스크리트 원문과 달마급다, 진제, 현장, 의정, 물러, 구마라집, 보리유지의 번역을 비교하여 각 번역자의 생각의도를 짚어준다. 또한 <금강경>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강경> 이름의 유래, 역대 한역본, 성립 배경, 논증 방식 등을 통해 <금강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정보를 총망라 했다.

박재완 기자

'명상', 꾸준한 실천이 중요해

명상선물

원빈 저음 | 이출버스 펴냄 | 1인6천8백원



"명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은 명상에 대한 안내서이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명상이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명상은 세계를 움직이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발휘하는 창의력과 통찰력의 근간으로 알려지면서 탁월한 자기개발법으로 자리 잡았다.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번뜩이는 직관의 힘을 키우고, 마음을 다스려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무엇보다 이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이제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책은 명상 입문자를 위해 전국민 행복프로젝트 '매일 15분 명상'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명상방법을 전달하고, 매일 오후 10시 회원들과 함께 명상을 진행하고 있는 원빈 스님이 그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중들과 명상에 관해 나누는 내용들을 정리한 명상안내서다.

책 <명상선물>에서는 계, 정, 해 삼학의 완성을 목표로, 명상내용을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표현된 친절한 안내 가이드 염라대왕과 함께 명상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명상선물>은 매일 15분 명상, 100일 완성 프로젝트다. 명상 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방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귀여운 염라대왕이 안내를 한다. 10명의 명부시왕과 지옥의 소개는 선업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어 내기 만든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 이미 가득한 행복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100일간 마음방을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명상록'이 탄생하게 된다.

명상을 하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어 자제력과 창의력, 자기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상의 성과를 얻으려면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책은 말한다. <명상선물>은 100일 수행계획과 명상을 수행하는 도반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명상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도와준다.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명상수행의 시작인 발원문 작성방법부터 제공되며, 발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발원문 양식, 실제적 수행인 명상방법, 명상을 시작하는 준비명상, 명상을 끝내는 마무리명상,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명상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100일 동안 명상수행을 할 수 있도록 10일 단위로 10명의 시왕과 시왕이 관장하는 지옥에 대한 소개를 하며, 하루하루 명상을 한 후 명상소감을 기록할 수 있는 마음방과 10일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카툰으로 된 염라대왕 선행미션을 안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전국민 행복프로젝트 '매일 15분 명상'에 대한 소개와 시왕과 심재일, 팔관제계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책은 매일 15분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명상내용과 오디오 링크(다운로드)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도(求道)소설

자유인 해월의 구도(求道)와 깨달음 이야기

소설 근아

석암 저음 | 150*210 | 248쪽 | 11,000원

<소설 근아>는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한 고개를 넘기 위해 지구에 내려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가며 수행해나가고, 마침내 자성관음(自性觀音)을 발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원력을 가진 수행자상을 그려나간 것이다. 저자는 석암스님(영구관음선원장).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합습하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습한다

동양학의 근본 경전 주역 바로 읽기

주역 개설

최정준 저음 | 신국판 | 232쪽 | 12,800원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선생의 제자인 철산(哲山) 최정준 박사(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겸임교수)는 기입인·공무원 주역교육의 최고 인기강사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八卦)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법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opia5@daum.net

탱화 청동불상 전문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